김 정 일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정 일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주체90(2001)년 7월 24일

이따르-따쓰통신사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제기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로씨야는 국경을 접한 이웃 나라이며 조로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입니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로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두 나라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은 조로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이 로씨야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조로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되

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나는 그때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과의 상봉에서 우리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공통된 의지와 립장으로 하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으며 호상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담과 담화들에서 쌍무관계문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조로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와 지향을 내외에 선포하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일치한 견해와 립장을 천명하는 조로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로공동선언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력사적인 문건입니다. 선언과 조약에는 조로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여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국방과 안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밝혀져있습니다. 조로공동선언과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 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게 되였습니다.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평양상봉이후 두 나라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속에서는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공동선언과 조약의 정신에 따라 지금 우리 두 나라사이에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고있습니다. 조선과 로씨야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공동선언과 조약이 있고 수십년간 서로 긴밀히 협조한 전통도 있는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면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 세기, 21세기

에 훌륭히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지도자들사이의 대화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사이의 관계가 두터우면 나라들사이,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뿌찐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이제 곧 로씨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씨야를 방문하여 모스크바에서 뿌찐대통령과 다시 만나는것은 기쁜 일이며 친선적인 로씨야인민들과 상봉하면 나에게 커다란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될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당면한 모스크바상봉이 지난해 평양상봉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관계를 두터이 하고 조로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하여서는 이 문제가 미국이 우리를 걸고드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그 무슨 《미싸일위협》을 들고 나오면서 미싸일방위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로씨야와 맺은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통하여 전략적안정을 유지할데 대한 로씨야의 립장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완전히 무근거한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조선이 미싸일로 미국을 위협하며》 그로하여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고 아무리 떠들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우기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오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횡포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미싸일강령은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미싸일강령을 추진하는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권

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일본의 립장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입니다.

우리의 자주정치, 우리의 자주적대외정책은 일관하며 확고부동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에 부닥치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죄많은 과거를 덮어두고서는 관계개선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동적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여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있습니다.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성근한 립장과 태도로 나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그만둔다면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할수 있을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들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있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털어놓고말하여 나에게는 하여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시간을 랑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하는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량식이며 생활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로씨야인민에게 친선의 인사를 보내며 강력한 로씨야와 훌륭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